

한길구역교재

9과 그리스도로 하나된 교회

에베소서 2:11-18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들어가면서

에베소서 2:11-22은 교회 에베소서의 꽃이라 불립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구원을 다룬 이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이번 과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적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 구조 이해하기

에베소서 2:11-22은 때를 기준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집니다.

- ① Part I 12절: 그 때에 (과거)
- ② Part II 13~18절: 이제는 (현재)
- ③ Part III 19~22절: 이제부터는 (미래)

Part I은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의 분리된 상태를 말하고, Part II는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새 피조물을 말하며, Part III는 이 구원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합니다.

■ 본문의 시대적 배경

옛 시대에 있어서(구약)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라는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 구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둘 사이의 화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 하며 경멸했습니다. 헬라인들(이방인)은 온 세계를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나뉠이의 벽이 교회 안에도 있어 교회의 하나 됨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심

1. 구원 받기 전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11

- 본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구원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신명기 8:11-18까지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실패하였습니까?

- 유대인들은 그들의 육체(할례)로 자랑을 삼았습니다.
빌립보서 3:3
-
-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예수 외에 다른 육체의 것으로 자랑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2. 바울은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을 다섯가지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12

- 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 ②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 ③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
- ④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
- ⑤ 하나님도 없는 자

● 이 다섯가지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13

● 야고보서 4:8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할 길은 무엇입니까?

●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후서 5:21

Part II 부분은(2:13~18)은 주어를 중심으로 또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 ① 13절 “너희” (멀리 있었던 너희, 관계가 깨어진 너희)
- ② 14절 “그”(예수)
- ③ 18절 “우리” (하나된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 같이 멀리 있어 하나될 수 없었던 “너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되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3.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기억해봅시다.

에베소서 2:14

“막힌 담”은 “적대감으로 나누어진 담”이었습니다.

당시 헤롯 성전 건물은 높은 단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그 주위를 둘러싸고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그 동쪽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더 동쪽에는 여자들의 뜰이 있었고, 이 세 뜰 외에 외곽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곳은 둘러싸인 벽에 의해 차단되었으며, 그 벽은 1.5미터 정도 되는 돌로 된 장벽으로, 그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헬라어와 라틴어 경고문이 쓰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침입자는 기소한다”가 아니라 “침입자는 처형된다”는 말이 써 있었습니다. (존 스토틀, *BTS 에베소서*)

4. 멀리 있던 “너희” 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15

-
-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사람(one new man)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한 사람은 육체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 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공동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한 사람이 되는 하나됨의 역사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에베소서 2:16

-
-
- 적용 질문: 나의 관계를 점검해봅시다. 혹시 “막힌 담” (2:14)을 쌓아 두었거나, 마음으로 “원수 된” (2:16) 관계는 없습니까? 화평한 관계의 시작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5.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비전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18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성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성부)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교회라는 위대한 신비로 인하여 감격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 적용 질문: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막힌 담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막힌 담은 나나, 우리 스스로 허물 수 없고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 읽어보기

타락한 형태의 복음주의로 물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인주의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저해하는 개인주의라는 영정귀와 자갈밭, 구덩이를 통과하는 와중에 그리스도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것이다.

개인주의가 우리 삶에서 마음껏 활개를 치는 한 우리는 교회를 끌어안을 수 없을 것이다. 개인주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 개인주의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평생 미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 바울은 이 점을 이해했고, 우리도 이것을 이해하기 원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으로 가득차 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나나 당신, 혹은 우리가 아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라. (유진 피터슨, *부활을 살라*)